

만언사(안조원)

아깝다 내 일이야, 애달프다 내 일이야. 평생 동안 한 마음으로 원하기를 충(忠)과 효(孝)를 아울러 온전히 하고자 하였더니 한 번 일을 그릇되게 하여 불충불효가 되었구나. 후회가 막급이라 뉘우친들 무엇하랴. 등잔불을 치는 나방은 저 죽을 줄 알았으며, 녹을 먹는 신하치고 죄를 지으려 하라마는 큰 액운이 앞에 당도하니 눈조차 어둡구나. 마른 쇠를 등에 지고 뜨거운 불길에 뛰어든 것이로다. 설령 재가 된들 누구 탓이겠는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마는 사람의 한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섬으로 보내시니, 아아! 임금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망극하구나.

: 자신의 잘못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음을 밝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유배로 대신하게 해 준 성은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

강나루에 배를 대어 부모와 친척들을 이별할 때 슬픈 눈물과 한숨소리에 막막한 뱃길이 머무는 듯하고 손잡고 이르는 말씀 잘 가거라 당부하니 가슴이 막히는데 대답이 나오겠느냐. 취한 듯 미친 듯 눈물로써 하직이라. 강위에 배 떠나니 이별할 때가 이 때로다. 산천이 모두 근심스러워하니 부자(父子)가 이별하기 때문이라. 노와 상앗대의 소리에 흐르는 배가 화살처럼 빨리 나아가니 긴 강이 어느덧 가로로 지나더라. 바람결에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오네. 길가는 나그네도 눈물을 흘리니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버지를 부르는 외마디 큰 소리에 애고하는 소리뿐이로다.

: 유배지로 떠나기 전 가족과 이별하는 장면

예전에 손을 잡고 반겨하는 집에도 내가 가지 않았었는데 오늘날에는 등을 밀어 내치는 집에 구차하게도 빌붙어 있으니 좋은 밥과 훌륭한 반찬은 어디로 가고 보리밥에 소금장을 대하며 좋고도 비싼 옷을 어디로 가고 여기저기 기운 헌옷을 입고 있는가. 이 몸이 살아 있는가, 죽어서 귀신이 되었는가.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살아 있는으나 모양은 죽은 귀신이로다. 한숨 끝에 눈물이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돌이켜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이 난다. 이 모양이 무슨 일이고 미친 사람이 다 되었구나.

: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후회하는 대목이다.

아아! 보리를 거두는 가을이 되었는가. 앞산 뒷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로 불어 보리물결 치는구나. 지계를 벗어 놓고 밭에서 꾸물거리며 한가하게 보이는 농부들아 내 물어보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이나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이 깎들 무엇하리. 해마다 풍년이 드니 해마다 보리를 베어 마당에서 두드려서 방아에 찼어내어 일부는 밥을 하고 일부는 술을 만들어,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격양가를 부르니, 농부의 저런 흥미가 이렇게 좋은 줄을 알았더라면 공명(功名)을 탐하지 말고 농사에나 힘을 쓸 것을, 흰 구름이 즐거운 줄을 푸른 구름이 알았다면 꽃 찾는 나비와 별처럼 법망(法網)에 걸려 이 고생을 하랴.

: 농부의 삶과 비교하며 공명을 탐하다가 유배 오게 된 자신의 처지를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아아! 민망하다. 주인 박대가 민망하다. 술 먹지도 않은 헛주정에 욕설조차 심하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나에게 들으라는 듯 하는 말이, “건너집 귀양객은 정승의 아들이요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에 죄를 얻어 이 절 해고도(絶海孤島)에 들어와서 이전에 자기가 호사(豪奢)를 부리던 얘기는 하지도 않고 여기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일을 배워 고기 낚기, 나무 베기, 돛자리치기, 짚신삼기, 보리동냥 등을 하여 주인집 양식을 보태는데, 한군데는(즉,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로 하루 이틀 몇 날이 되었으되 공짜 밥만 먹으려 하는가. 사용하라고 달려 있는 열 손가락은 꼼짝도 하지 않고 걸으라고 있는 두 다리는 움짱하지도 아니하네. 썩은 나무에 박은 끌인가 전당포에 잡힌 촛대이런가. 종을 찾으러 온 양반인가, 빚 받으러 온 채권자인가.

: 다른 집 귀양객과 비교하며 집주인이 박대하는 장면

이곳의 풍속을 보아하니 해괴망측한 일이 많구나. 인륜(人倫)이 없으니 부자(父子)간에 싸움질이요, 남녀의 분별이 없으니 계집들이 등짐을 지더라. 그 지방 사투리가 괴이(怪異)하니 존대인들 알겠느냐. 다만 아는 것이라고는 주인의 셈법에 둘 다섯, 홀 다섯 등으로 모두가 오진법이더라. 포악함과 박절함을 예의염치로 삼고 분전승합으로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삼으니 한두 가지 공덕을 쌓고 그것이 지극한 효도인 것으로 아니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예절은 보리를 담아둔 큰 항아리 같이 불품없으며 나가고 돌아올 때 부모님께 고하는 법은 아예 없어 병어리지금통처럼 말이 없다. 임금의 가르침이 미치지 못하니 하는 짓마다 오랑캐의 습속(習俗)이

로다. 사람들의 기본 심성이 말이 아닌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냐. 내가 귀양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모양을 보았겠는가?

: 유배지의 풍속, 미개한 삶 비판

조그만 실개천에 발이 빠진 소경도 눈먼 것을 한탄하고 개천 원망 하지 않으니 주인이 아니어서 짓는 개를 꾸짖어서 무엇하리.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생계를 생각하고 물고기 낚기를 하자하니 배 멀미를 어찌하고, 나무를 베자하니 힘이 모자라 어찌하며, 돛자리치기와 신을 삼는 일은 할 줄 모르니 어찌하리. 아아!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하여보자. 망건을 벗고 갓을 숙여 쓰고 홀 중치막의 띠를 끄르고 총만 남은 헌 짚신에 가는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담뱃잎도 없는 빈 담뱃대를 심심풀이로 가지고서 비속비속 걷는 걸음에 걸음마다 눈물이 난다. 세상의 인간사는 모두 꿈이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도 더욱 꿈이로다. 옛그제는 부귀한 사람이었고 오늘 아침엔 빈천한 사람이라. 부귀했던 과거가 꿈이던가, 빈천한 오늘이 꿈이런가. 장자가 호랑나비 되는 꿈이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정 꿈인가. 한단지몽이 꿈인가 남양에서 밭 갈던 삶이 큰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꿈속에서 보이던 흥한 일이 이러하니 현실로 돌아온 새벽에는 크게 길할 것이로다. 가난한 집은 그냥 지나고 넉넉하게 잘 사는 집은 몇 집이나 되는가. 사립문 안에 들어가자고 할까 마당에 서겠다고 할 것인가.

철없는 어린 아이와 소 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 가리키며 귀양다리 온다고 하니 아아! 괴이(怪異)하다. 다리라고 칭하는 것이 괴이하다.

: 동냥을 나가는 장면과 아이들이 놀리는 장면을 보여주며 유배지에서의 비참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낚시를 던져놓고 무심히 앉았으니 크나큰 은빛 물고기가 저절로 와서 무는구나. 구태여 물고기를 잡아가랴. 오직 스스로 흥겨워함을 위한 낚시로다. 낚싯대를 떨어뜨리니 잠든 갈매기가 다 놀라는구나.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너를 잡을 내가 아니로다. 네 본래 영물(靈物)이니 내 마음을 모르겠는가. 평생에 사랑하던 입을 천리 밖으로 이별하니 사랑함도 좋거니와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니 근심의 마음이 첩첩하게 쌓여 마음을 둘 데 없어 흥(興)이 없는 낚싯대 하나를 실없이 던졌나니. 물고기도 물지 않는데 하물며 너를 잡으랴. 그래도 모르거든 너의 긴 부리로 내 가슴 쏘아 헤쳐 붉은 마음 내어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거의 알 것이로다. 공명

(功名)도 다 던지고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하니 변창하고 태평한 이 시대에 한가로운 사람이 되어 너를 좇아 여기에 왔노라. 나를 보고 날지 마라. 너의 벗이 되리로다. 갈매기와 말을 주고받으니 떨어지는 해는 아득하구나. 낚싯대의 줄을 거두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강촌으로 돌아들어가 주인집을 찾아오니 문 앞에서 짓던 개는 나를 보고 꼬리친다.

: 잠시 짬을 내어 낚시하고 성을 갚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펄펄 뛰던 물고기 회를 친다한들 목이 메어 들어가겠는가. 설움도 남에게는 없는 것이고 못 건뎌도 남과 다르니 나가 일 년 고생 하는 것이 남의 고생 십년 하는 것과 같도다. 흉(凶)한 것이 길(吉)하게 되려 하는지, 고진감래 언제 할까. 하나님께 비나이다. 서러운 원정(冤情)을 비나이다. 달력도 해가 지나면 다시 쓰지 아니하고 노여움도 밤이 지나면 풀어져버리나니 세사(歲事)도 세월이 흘러 묵은 일이 되고 사람의 일도 묵은 일이 되었으니 죄를 모두 씻어 주어 이제 그만 용서하사 끊어진 옛 인연을 다시 잇게 하옵소서.

: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하고 있다.